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1	06. 28	07. 02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아윤선 성도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6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됨을 축하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 기도하는 달입니다.
4. 북부지역 목회자 협의회 - 16일(화) 12시30분 함부르크 선교교회에서 모입니다.
5. 한국 방문 - 장래황, 공지원 성도 가정(18일 출국)
6. Bayreuther Festspiele - 김정규 형제(18일 출발)
7. 입시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8. 나눔의 시간 - 임미수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0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윤미경 자매
성경봉독 Predigttext	딤후 2 : 1 - 4(신p338) (2.Timotheus 2:1~4)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교회의 사명 - 국가를 위한 기도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교회의 사명 - 국가를 위한 기도

지난주 우리는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세워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 변혁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본질과 사명으로 ‘기도’를 말씀합니다. 기도보다 판단과 말이 앞서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I.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1절)

바울 사도는 기도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그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간구(Bitte): 개인의 절박한 필요나 죄의 용서를 구하는 탄원

기도(Gebet):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통하는 포괄적인 대화

도고(Fürbitte): 타인과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바울 당시 황제 숭배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합심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마 18:19).

II. 교회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2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정부 시대에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도자들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III.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3~4절)

박해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시련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순수한 신앙을 세워가십니다(잠 17:3)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지만,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박해를 이겨냈듯, 이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국가와 지도자, 그리고 모든 이들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비판과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해보세요
2. 세속적 가치관의 도전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나눠보세요.